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스팟르포르타주

사진 및 글: 이상훈

자전거는 문화다

제1편

한국



자전거는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전거를 타는 방식 혹은 환경이 달라 자전거사용자들을 보면 자전거에 대한 문화를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에 대한 자전거문화를 살펴본다.

a. 한국의 자전거 문화?

자전거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참 애매모호한 질문이다. 문화라는 말을 가질 만큼 자전거라는 운송수단이 한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현재 공공디자인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친환경 에코라는 단어가 대두가 되어서 운송수단 중 자전거가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많은 자전거에 대한 시설물들이 생겨나며, 그에 따라 자전거가 주목이 되기 시작했다.

그 관심만큼 현재까지 한국의 자전거가 어떻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한국의 자전거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자전거를 하나의 레저용 혹은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용을 해오고 있다. 속도를 즐기기 위하여, 혹은 운동을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을 해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특히 요즘 자전거에 대한 스타일?이 좋아지면서 그 수요 또한 많아졌다. 그 이유에 운동에 대한 열풍이 시작되면서 자전거의 사용자들이 더 많아지게 된 셈이다.

b. 한국의 지형

한국은 산의 지형이 많아 실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건 힘든 일이다. 특히 오르막길 등 지형이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하여 좋은 지형은 아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하여 자전거를 타는 사용자들은 어떤 장소에서만 타게 되어 레저용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 가장 자전거를 타기 좋은 장소는 아마 한강일 것이다. 한강은 강을 따라 평지로 되어 있으며, 자전거를 타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되어 있다. 그런 이유에서 한강엔 자전거를 타는 사용자가 많다. 단지 평지라는 자전거를 타기 좋은 지형으로 인하여 자전거사용자들이 모이게 된다는 점에서 자전거를 타는 지형만 좋으면 자전거의 사용자는 더 많아 질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본다.

c. 한국의 자전거주차장? 폐차장?



<그림1>



<그림2>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자전거 주차장이 아닐까 싶다. 그 이유는 도난일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자전거 주차장은 말만 자전거를 위한 주차장일 뿐 못쓰는 자전거를 버리는 자전거폐차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도난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의무적인 자전거 주차장때문이기 때문이다. 자전거사용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면, 사후관리 및 유지가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전거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 건물 및 자전거주차빌딩까지 지어지고 있지만 그 수요 또한 한정적이기에 아직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d.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현재 도로를 좁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말이 많으며 자전거도로를 더 확보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건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싶다. 이 말을 하는 건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자전거를 타는 사용자들을 위하여 안전을 고려해야지. 단지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든다고 하여 자전거사용자들이 많아지고 문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안전하지 않은 자전거도로를 타고 돌아다닐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현재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를 보면 도로 한 부분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차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차들이 옆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 위험적인 요소들이 즐비하며,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e. 자전거스타일?

한국의 자전거는 아마 다른 나라보다 가장 좋은 스타일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일 것이다. 많은 기능을 가진 자전거와 화려한 컬러 및 여러 종류의 자전거등 아마 그 목적이 레저용이기에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자전거에 맞게 복장을 갖추어 입고 스피드를 즐기며, 지형때문에 MTB의 자전거등 전문가용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이다. 일정한 장소에서 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순간만을 위하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의 표현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e. 자전거문화는 있다? 없다?

아직 한국에선 자전거문화라고 말 할만큼 그런 특별한 특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한정적이며, 자전거문화를 형성 할만큼 외부환경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 목적이 다르기에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하지만 현재 잠실이나 송파등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엔 한정적이긴 하지만 자전거를 통한 통학이나 마트를 가기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 만약 그 공간이 한정적인 것이 아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늘어날 것이며, 한국만의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한 자전거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이후의 사후관리도 잘되어진다면, 안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진다.

f. 제안?

예를 들면 자전거를 위한 순환버스가 생긴다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를 순환버스에 옮겨 타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내려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갈수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강을 지나서 그 이후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되어 있어 불편함 때문에 타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전거 출퇴근자들을 위한 건물에 샤워시설이 되어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면서 샤워를 한다면 아마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다.